

특선급 복병 3인방, 존재감 낮지만 한 방 있네!

권혁진·조영환·이성용 중고배당 복병
우수급 김용해·이동근 등도 기세등등
최근 2~3회차 활약 여부 눈여겨보아

경륜은 선수의 기량, 점수 등에 따라 인지도가 변화한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최근 기세 또한 선수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뚜렷한 축이 없는 혼전경주나 기량이 엇비슷한 선수들끼리 나선 결승 등에서 요즘 기세 좋은 선수들의 활약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특선급 복병 3인방 이성용·권혁진·조영환
특선급은 선수들의 기량이 상향평준화되어 있다. 다만 의외의 복병들이 활약하면서 최근 도입된 삼쌍승식, 쌍복승식의 배당을 높여주고 있는데 권혁진, 조영환, 이성용이 대표적이다. 세 선수의 공통점은 우승후보는 아니지만 내선을 활용한 끌어내기, 혹은 몸싸움을 통한 라인전환으로 적잖은 중·고 배당을 발생시킨다는 점이다. 권혁진은 우수급에서 승급한 여세를 몰아가고 있고, 조영환도 어느 정도 특선급에 녹아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성용은 특선급 터줏대감으로 존재감은 낮지만 언제든 한방이 있다. 이들은 삼쌍승식, 쌍복승식에서는 눈여겨 볼만한 최근 기세 좋은 선수들이다.



●우수급 점수에 나선 김용해·이동근·송현희
하반기 우수급은 요즘 절대적인 강자가 없는 춘추전국시대다. 특히 우수급 결승은 누가 우승을 차지해도 이상하지 않을 경주가 많다. 이중 최근 기세 좋은 선수가 김용해, 이동근, 송현희다. 이들은 선행이면 선행, 젓히기면 젓히기, 상황에 따라서 추입까지 보여주며 전전후 활약상을 펼치고 있다. 김용해는 올해 우수급으로 내려온 뒤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혼런지 리그전 이후 상승세를 제대로 타고 있다. 6연



승을 기록 중인데, 다음 회차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질 경우 조기에 특선급 재진출이란 패거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이동근, 송현희도 특선급에서도 통할만한 젓하기를 보유한 선수들이라 큰 이변이 없다면 다음 등급사정에서 특선급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 밖에 선발급에서 요즘 기세 좋은 선수들로는 설영석, 김덕찬, 박일영 등이 있다. 세 선수들 역시 몸상태가 최상이고, 다양한 전술 구사 가능하기에 앞으로 상승세



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명품경륜 승부사’ 이정구 씨는 “최근 경륜은 점수가 낮더라도 기세 좋은 선수들을 인정하는 흐름이어서 기본 인지도를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해도 2~3회차 정도를 놓고 좋은 활약상을 보인 선수들은 반드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기본 전법 외에 젓히기나 선행 승부를 펼치는 선수들은 혼런랑과 몸상태가 좋다고 볼 수 있어 이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정 ‘최고의 루키’ 누구냐

오늘 신인왕전…15기 상위 6명 출전

경정 최고의 루키를 가리는 ‘2018 신인왕전’이 21일 열린다. 올 시즌 데뷔한 15기 경정선수 16명 중 28회차부터 45회차까지 상위성적 김정일, 조승민, 엄광호, 김지영, 정세혁, 김태영 6명이 출전한다.

우승후보 0순위는 김정일이다. 졸업경주 1위, 졸업평가 1위, 그리고 평균득점에서 출전 선수 중 1위다. 기본기가 튼튼해 실전 경험을 더 쌓는다면 앞으로 선배 선수들을 위협할 선수로 평가 받는다.

조승민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올 시즌 1착 4회, 2착 2회, 3착 1회를 기록하며 동기들 가운데 가장 많은 우승 횟수를 쌓아가고 있다. 특히 1착 4회를 모두 인코스(1코스 2승, 2코스 2승)에서 기록한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여자 선수로는 유일하게 신인왕전에 출사표를 던진 김지영도 우승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졸업경주에서 3위를 차지했으며 현재까지 1착 2회, 2착 4회, 3착 2회를 거두고 있다. 여기에 1착 3회, 2착 2회, 3착 2회를 기록한 엄광호도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요주의 선수다.

경정 전문가들은 “신인왕전은 선수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배정받는 모터의 성능과 코스가 승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데뷔한지 1년차 밖에 안된 신인들의 주도권 다툼인 만큼 선입견 보다는 종합적으로 경기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경정 주선보류 3회 받으면 강제 은퇴…“나 지금 떨고 있니”

반기별 커트라인 못넘을 경우 제재
주선보류 2회 20명 막판 사투 변수

경륜경정사업본부 경정운영단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1년에 두 번 등급산정을 실시한다. 이때 일정 기준 미만의 선수들은 주선보류라는 제재를 받는다. 주선보류를 총 3회 당하면 은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다. 성적을 미리 올려놓지 못한 선수들은 등급산정 기간이 다가올수록 위기 탈출을 위한 눈물겨운 사투를 벌일 수밖에 없다. 시즌 막바지로 갈수록 이런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현재 주선보류를 2회 받은 선수들은 20명이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성적 관리를 잘해서 이번 등급산정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균득점이 커트라인에 있는 김국흠(3.43, 46회차 마감 후 기준)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현욱(3.69), 박영수(3.74), 임정택(3.27), 정장훈(-0.11)은 남은 시즌 동안 부지런히 점수를 올려놔야 한다. 권현기, 이지수, 이창규, 박민수, 정장훈, 박준호, 조현기, 여현창, 지현욱, 황이태는 출발 위란을 한 차례씩 기록하고 있어 심리적인 부담을 안고 가야한다.

주선보류를 1회 당한 선수 중에서는 권

일혁(3.69)과 김종희(3.79)가 분발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후반기 성적이 최하위권인 김희영(1.75), 윤영근(2.27), 김세원(2.71), 김태용(3.15), 김도휘(3.50), 나병창(3.52) 역시 출전 경주마다 모든 것을 쏟아내야만 하는 주선보류 위기 선수로 꼽힌다. 신인 선수에게 주어지는 4년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13기도 이제부터는 주선보류를 의식하며 경주를 풀어나가야 한다.

경정운영단은 3년 동안 A급(A1, A2)에 4회 진입시 주선보류 1회를 소멸해주고 있다. 2017년 후반기에는 박석문, 최광성, 문안나, 2018년 전반기에는 강창효, 김창규가 소멸 대상 선수였다.

정용운 기자

경륜경정산본지점 기부금 전달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본지점은 15일 군포시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한대회 군포시장, 관내 4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장, 최용필 산본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기부금은 군포시 4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해 저소득층 청소년 문화체험, 복지 사각지대 해소, 저소득 가정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 지원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경륜경정사업본부 산본지점은 2016년부터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기부하고 있다.

정용운 기자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농구팬 54%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전 승리” 케이토토, 건전발전위원회 발족

농구토트 W매치 68회차 중간 집계
신한은행 새 외국인 만로 활약 기대

국내 농구팬들은 21일 열리는 2018~2019시즌 국내여자프로농구(WKBL) 인천 신한은행-부천 KEB하나은행전에서 홈팀 신한은행의 우세를 예상했다.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는 21일 오후 7시 인천도원시립체육관에서 열리는 신한은행-KEB하나은행전을 대상으로 한 농구토트 W매치 68회차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 54.01%가 신한은행의 승리를 예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10점 이내 박빙을 예상한 참가자는 26.65%로 뒤를 이었고, 원정팀 KEB하나은행의 승리를 예상한 참가자는 19.34%에 그쳤다.

전반전에서도 신한은행의 리드 예상이 52.70%로 우위를 차지했고, KEB하나은행 리드(25.35%)와 5점 이내 접전(21.96%)이 그 뒤를 이었다. 최종 점수대는 신한은행이 70점대, KEB하나은행이 60점대를 기

록할 것이라는 예상이 14.65%로 1순위를 차지했다.

양팀은 이번 시즌 개막 후 5경기에서 1승 4패 저조한 성적으로 공동 5위를 기록 중이다. 부진한 기록은 동일하지만 한 차례의 맞대결에서는 승부가 갈렸다. KEB하나은행은 신한은행을 상대로 홈 이점을 살려 82-43으로 승리했다.

이 경기 결과만 생각하면 KEB하나은행의 승리에 무게가 쏠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반동의 계기를 가진 팀은 신한은행이다. 신한은행이 올 시즌 부진했던 스트리커를 내보내고 만로를 새로 영입했기 때문이다.

대부분 20점차 이상으로 참패를 당했던 신한은행 부진의 원인이 외국인 선수의 기량차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경험을 갖춘 장신(196cm) 센터 만로의 존재는 큰 힘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농구토트 W매치 68회차는 경기 시작 10분전인 21일 오후 6시 50분 발매가 마감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 적중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외부전문가 5명 포함해 총 7명 구성
건강한 스포츠레저문화 만들기 앞장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주)케이토토(www.ktoto.co.kr)가 더욱 건강하고 건전한 투표권 문화 형성을 위해 지난 16일 건전발전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건전발전위원회는 공익 및 스포츠관련 시민단체 외부전문가 5명과 케이토토 내부위원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1년 임기 동안 건전화 정책 수립 및 의견 수렴,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김규호 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지양 양산 YMCA 사무총장, 박창병 체육시민연대 교수, 서희진 건국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 등 각 분야별 전문가 및 공신력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됐다.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로 연간 4회에 걸쳐 펼쳐지며, 투표권사업의 건전화와 관련한 다양한 토론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된다. 특히 이번 건전발전위원회에서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비대면 판매 및 판매

한도 초과 근절을 위한 방안과 불법스포츠도박 적폐를 위한 대응 방법, 그리고 투표권사업을 통한 건강한 레저 스포츠 문화 형성을 위한 수탁사업자 방향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케이토토는 법무법인 해우 이치선 변호사를 건전관리센터 전담 고문변호사로 위촉해 건전화 정책 추진과 사업건전화에 관련된 다수의 법률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고문변호사는 향후 1년 동안 미성년자판매나 구매한도초과, 비대면 판매와 같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행위부터 투표권판매인 및 이용자의 위법행위, 불법스포츠도박 운영자 및 이용자 관련 사건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주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타 사행사업관련 재판 사례연구와 투표권사업에 관한 제언, 그리고 법률자문이 요청되는 제반 회의 등에 참석하게 될 예정이다. 케이토토는 10월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홍보대사로 위촉한데 이어 전담 고문변호사를 선임함에 따라 건전발전위원회의 정책들이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케이토토-KPGA 목소리 기부 봉사

케이토토와 한국남자프로골프(KPGA)가 한 마음으로 다문화 가정 아동들을 위한 목소리 기부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KPGA 코리안투어 각 대회의 매 라운드 지정된 홀에서 버디 이상 기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기부금으로 조성한 ‘TOTO Angel 캠페인 with KPGA’의 일환으로, 올 시즌 만들어진 기금 일부를 활용해 계획된 케이토토와 KPGA의 합작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특히 케이토토와 KPGA의 임직원들은 물론 시즌을 마친 KPGA 코리안 투어 대표 선수들이 이형준, 문경준, 권성열, 이근호, 이준석 등이 두루 참여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전문 성우의 트레이닝은 물론 각 역할에 따른 리허설까지 진행하는 등 양질의 녹음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후 무사히 동화책 녹음이 성공했다.

이렇게 녹음된 동화책은 전달식을 통해 재생할 수 있는 북리더기 및 동화책 55세트와 함께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신목중합사회복지관에 기증됐다. 이는 향후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한국 문화에 하루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유익하게 쓰일 계획이다.